

재탕되는 대형 지역개발 공약 예산·실현성 ‘깜깜’

경실련, 대선 지역개발 공약 분석

민주 개발 공약 중 호남권 38.1% 최고 “재원 소요·조달 방안 기재 법제화해야”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거대 양당이 수백 건에 달하는 지역 개발 공약을 경쟁적으로 발표했지만 대다수가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나 실행 전략 없이 반복 제시된 ‘재탕 공약’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결여된 ‘슬로건형 공약’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 공약은 지역의 토지 이용 구조를 변화시키는 토목 건설 중심 사업이자 일반적으로 막대

한 예산이 투입되며 선거에서 표심을 겨냥한 것이 대부분이다. 도로, 철도(전철), 공항, 항만, 지하화, 산업단지(클러스터) 등이 여기에 속한다.

2일 경실련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시·도 공약 중 ‘지역 개발 공약’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총 124건의 공약 중 개발 공약이 38건(30.6%)에 달했다.

특히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21건 중 8건(38.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도권 29건 중 10건(34.8%), 충청권 26건 중 8건(30.77%), 영남권 34건 중 10건(29.41%), 강원·제주 14건 중 2건(14.29%) 등의 순이다.

또한 민주당의 개발 공약 38건 중 21건(55.26%)은 20대 대선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제시된 재탕 공약이었다.

지역별 재탕 비율은 강원·제주 2건 중 2건(100%),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권 8건 중 5건(62.5%),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10건 중 5건(50%),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8건 중 4건(50%),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경상권 10건 중 5건(50%)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광주·전남의 대표적 재탕 공약으로 ▲광주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 공항’ 조성 ▲전남 ‘미래 첨단전략산업클러스터조성’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은 총 463건 중 155건(33.48%)이 개발 공약이었다. 권역별로 수도권 104건 중 44건(42.31%), 충청권 109건 중 40건(36.70%), 영남권 116건 중 34건(29.31%), 호남권 87건 중 24건(27.59%), 강원·제주 47건 중 13건(27.66%)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의 개발 공약 155건 중 27건(17.42%)이 재탕 공약이었다.

문제는 이들 공약 대부분이 수조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초대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각 공약별로 ▲재탕 여부 ▲예산 여부 ▲총사업비 ▲재원조달 방안 ▲핵심 쟁점 등을 기준으로 실현 가능성을 알 수가 없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슬로건형 개발공약이 유권자 표심을 겨냥해 반복되고 있으나 실제 사업화는 불투명하고 국가·지방 재정에 부담만 가중시키며 공약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책임 주체도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지난 6월5일 양당 대선 후보에게 공식 질의서를 발송해 공약별 재원 소요 및 조달 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를 요청했지만 누

구도 답변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지 정당의 무책임만이 아니라 현행 제도 상의 공백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이 제출하는 공약서는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의무가 없는 실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선거공약 남발을 방지하고 실현가능한 정책 중심 선거로 전환하기 위해 선거공약서 제출 의무화, 공약별 재원 소요 및 조달 방안 기재 법제화, 비용추계 및 공개 절차 마련 등을 촉구한다”며 “이를 통해 정당이 선거 때마다 반복하는 무책임한 개발 공약이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책임 있는 정책공약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공약 검증권과 정책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김병내 남구청장, 봉선시장 상인 간담회 김병내 남구청장이 2일 구청 열린민원실에서 봉선시장 상인회 신규 임원진 구성에 따른 상견례 및 시장 운영에 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상인회장과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광주남구 제공>

전진숙 “호남고속도로 예산 반드시 복원”

용봉 IC 등 30년 숙원 조속 추진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사진)은 2일 광주시의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 재추진 결정과 관련, “복구를 주민들의 30년 넘은 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국비 307억원을 반드시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전남 시민토론회를 통해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국비 예산을 되살려 사업을 재추진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호남고속도로 확장 사업은 단순히 주민 교통 불편 해소라는 측면



을 넘어 지역 발전과 광주 경제 활성화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조속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북구 핵심 공약으로 선정된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및 관문 도로 교통인프라 확충 지원’을 직접 제출해 지역 우선 추진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한 그동안 정부 정책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교통난 해소와 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왔다. /김진수 기자

광주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추경예산 확보 촉각

국회 국토위 심의서 연구용역비 10억 반영 예결위 통과시 ‘메가샌드박스 신도시’ 탄력

‘광주 인공지능(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0억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부 추경안에 반영돼 광주시가 최종 예산 확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 광주시 등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AI 모빌리티 국가시범 도시’ 조성 연구용역비 10억원을 정부 제2회 추경안에 반영·조정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보냈다. 예산 반영에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

의원(광주 북구갑)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는 대선 전부터 이 사업을 공약에 반영하기 위해 주력했으며 새 정부 출범 후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이 사업은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과 AI 기술 융합을 통해 기업 실증·테스트베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메가 샌드박스 시범 신도시’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광주시는 빛그린 국가산단과 미래차 국가산단에 규제 프리존 메가 샌드박스를 조성해줄 것을 건의해 왔다.

이처럼 연구용역비 예산 확보 가능성이 열림에 따라 광주시도 기대를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서 지적된 지역 전략산업 육성 지원 요청 등 준비 미흡 평가를 만회할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날 7월 정례회에서 “무능한 시장으로, 준비 안 된 광주시로 한순간에 낙인찍히고 말았다”며 “AI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의 밑그림을 그려 올해 안에 선보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국회 예결위 심사 등이 남아있지만 이번 예산이 반영되면 AI 모빌리티 미래 신도시의 큰 그림을 정부와 함께 그려갈 수 있게 된다”며 “추경안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송언석 “불법 계엄 사과 책임 통감”

국힘 비대위원장 취임 회견

“정책 전문 정당 거듭날 것”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일 “작년 12·3 불법 비상계엄과 이로 인한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실망을 끼쳐 드렸다”며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런 과오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성찰과 각오를 새기고 또 새기면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출범한 비대위는 새로운 당

지도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라며 “비록 여러 제약 조건이 있지만 국민의 힘이 승리하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데 초석을 놓는다는 심정으로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비대위원장은 “유능한 정책 전문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정책으로 경쟁하고 입법으로 실천하는 유능한 야당으로 거듭나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증진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의 역량을 집중할 3대 정책 분야로 ▲반도체와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첨단 산업 육성 정책 ▲미래 세대에겐 안정적 일자리와 자산 증식 기회를 갖게 하는 청년 희망 정책 ▲경쟁에서 뒤처진 계층의 자활과 재기를 돕는 취약계층 돌봄 정책을 제시했다. /김진수 기자

실리를 따진다면 가성비 좋은 피닉스입니다!

1. 믿을 수 있는 100% 국내공정
2. 신속하고 확실한 A/S
3. 합리적인 가격에 고품질 품질

고블 G-07 프리미엄
럭셔리 프리미엄 상급자용

피닉스 K-07
럭셔리 중상급자용

피닉스 G-01
초보 입문자용

전 브랜드 할인 판매! 중고 골프채 보상 판매!

장인의 기술

오랜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순수 국내제작으로
정밀함과 기술로 정성을 다해 만든 국내 장인 제품입니다.

A9 Nice Shot

상급자를 위한 정교한 방향성, 비거리, 타구량 향상

소비가격 ₩ 1,180,000

헤드	단형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5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A100 Nice

부드러운 타구감, 방향성, 비거리 최적화 / 골프엘리트 완전해결

소비가격 ₩ 1,380,000

헤드	단형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신공법으로 설계 초고탄성 카본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2g (±10g), 샤프트 50g

A5

최적의 밸런스 부드러운 스윙과 안정적 타구감

소비가격 ₩ 800,000

헤드	단형나무 / 고탄성 카본 / 황동
샤프트	최고급 고탄성 카본 100% (88g/50g)
길이	85cm / 83cm (여성)
중량	525g (±10g)

영무SP sports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